

보 도 해 명 자 료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독거노인 지원 확대하는 '에너지바우처'('16.12.21.이테일라)

1. 기사내용

- ☐ 에너지시민연대 조사 결과, 빈곤층 절반 이상이 에너지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며, 응답자 대다수가 독거 노인
- ☐ 에너지 복지사업 관련 지원 예산은 정채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동 조사*와 에너지바우처 제도**는 대상가구가 달라 직접적 비교는 곤란
 - * 기초생활수급자(약 104만), 차상위계층(약 45만~55만), 일반가정(포함) 가구
 - ** 기초생활 수급가구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로서 노인·장애인·영유아·장애인 등을 포함한 가구(약 55만, '15년)
- 한편,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'15년 전체 수급가구(49.5만) 중 66%(32.7만)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인 바, 독거 노인 지원 확대는 사실과 다르며,
 -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대신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직권신청을 하는 등 독거 노인층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 중
- ☐ 또한,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실제 수급대상 가구 및 지원금액은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임
 - * 대상 가구 : '15년 55만 → '16년 57.4만 → '17년(예상) 59.9만
 - ** 지원 금액 : '15년 452억 → '16년 534억 → '17년(예상) 567억
- 다만, 당초 사업설계시 추정한 대상가구수를 실제 사업 시행과정에서 복지부 맞춤형 급여 지급기준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대상 가구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예산금액이 '16년 및 '17년 감소한 것임.
 - * 당초 88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산하였으나, 실제 지원대상 가구는 55만으로 확정

※ 문의: 에너지지원정책과 김정일과장(044-203-5120), 광정관사무관(044-203-5126)